

# 월/요/광/장

## 손용엽



광산업과 디자인산업을 발판으로 하여 연구개발특구를 광주지역에 유치하려는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었지만 이 지역의 추진주체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은 것도 그 속도감을 늦추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살길은 첨단기술과 첨단산업뿐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한다.

그러나 최첨단기술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열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중요하겠으나, 그것이 연구단계를 거쳐 산업화하고 상품

가공산업, 가전산업, 조선기업 등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략 수립에도 지역사회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공장부지가 좁아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현재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이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풍부한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광주시는 광주지역에서만 대안을 찾으려 하고 전남도는 전

오락산업 등도 더 이상 퇴폐향락산업이 아닌 생산적이고 창조적 행태로 탈바꿈하여 관광과 기업서비스 산업에 연결되어야 한다.

제조업 중심 풍조에서 서비스업은 규제를 많이 받아왔고 비교역제 상태를 오래 지속하여, 이해집단들의 개방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고 생산성도 낮다. 그 결과 서비스 가격은 일본보다도 비싼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높아진 소득으로 고급서비스를 찾는 국내 고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국내 고객들이 해외로 빠져 나간 결과, 여행수지 및 서비스 무역역조는 날로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업종만 잘 선택하면 서비스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 바로 콜센터다. 주요 기업들이 광주에 콜센터를 설치해 일군 고용창출 효과가 근래에 자동차부품산업이나 가전산업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보통신사회에서 거리 소멸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잘 찾는다면 우리의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웅변해줄 것이다.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광주·전남경제의 희망 찾기

화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재원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당장 돈을 벌여주는 산업도 필요하다. 광주지역의 금형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등이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산업들이 종종 배척되는데,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유인을 이용한 환경관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은 환경질대문턱인 태도가 가져오는 우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기업과 석유화학기업, 철강금속

남지역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 광주지역에 옮겨왔던 가전산업의 주력부대가 경제성을 잃어 주요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을 안타까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희망적인 것을 찾는다. 제조업과는 다른 대체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체산업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서비스업이다. 보건, 의료는 물론이고 운송, 보관, 금융, 회계, 무역 등 기업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호텔과 숙박,

대통령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이 걸려 있는 올해에, 지역의 낙후된 산업의 장기적인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산업을 열어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역 유체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추진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장차 광주의 경제를 일으키고 전남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희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최첨단 기업에만 치중해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흔히 대학교수들과 중앙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 임정근



사진은 사각의 프레임 안에 우리의 삶의 정지된 순간을 담아 순간의 참나를 영원한 기억으로 남기는 매력이 있어 대학시절부터 카메라를 들고다니며 사진 찍기를 즐기고 있다.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려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이고 다른 한 사람은 김기찬이다. 앙리카르티에 브레송은 흑백사진을 현대예술의 한 분야로 승격시킨 거장으로 그는 결정적 순간(Decisive moment)을 추구하고 개념 정의를 한 사진가이다.人間愛를 바탕으로 한 참나에 사실의 의미와 형태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그의 사진 속에서 추함이나 경멸 등의 감정을 볼 수 없고 오로지 사람에

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애를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

나는 작년 9월, 4년 7개월간의 금융감독원 변호사 생활을 접고 검사로 임관해 이곳 광주에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는 늦깎이 초년 검사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금융전문변호사로 서울 여의도에서 치열하고도 숭찬 생활을 하며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조금은 낮은 금융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실무경험을 쌓으며 나름대로 매 순간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는 자세로 살아왔다.

그렇다면,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검사인 나에게 있어 어떤 순간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흑자는 시대의 관심을

## '인간애' 있어야 진정한 檢事

대한 보살판이 35mm 필름의 프레임 안에 보일 뿐이다.

15년 전 대학시절 멕시코 청년을 찍은 그의 사진을 보고 참으로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통해 인간애에 대한 열정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그의 사진과 삶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었고 지금도 매우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다.

또 다른 사람은 김기찬으로 그는 한국사진사에 있어 중요한 선을 그은 한국 현대사진예술의 자랑스러운 사진가이다. 구공탄 냄새가 풀풀 나고 빨래가 널려 있는 우리네 골목길을 30여 년간 오직 한 주제로 하여 사진 활동을 했다.

골목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 넘치는 삶을 가시 씬이 없는 시선으로 따스하게 표현했고, 우리의 어머니·아버지·형·누나·언니·동생 등 작지만 애잔한 풍경들을 인간애(人間愛)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추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소개한 두 작가의 공통점은 모두 근래 삶을 마감했다는 점과 인간애를 표현한 사진가들이라는 점으로 내가 그들

은 사건을 수사하고 그 실적을 내는 것이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브레송이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듯이 하루하루 내가 만나고 결정하는 이 순간이 모두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을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나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결정적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억될 것이다.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건 그들은 나와 함께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결정적 순간을 인간애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검사가 진정한 검사의 참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초임자인 광주에서 검사로서의 결정적 순간을 인간애라는 카메라로 멋지게 담아낼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행복한 검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광주지검 검사)

##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천차만별 이해안돼

임신한 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때 마다 아기 건강 체크를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병원마다 초음파 검사비가 틀리다는 것이다.

천정 인근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초음파 검사하는데 7만5천원이 나왔다. 평소 근처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2만5천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3배다.

다른 병원들도 모두 검사비가 달랐다. 그렇다고 개인병원보다 초음파기가 월등히 고급 정밀기계도 아니고 개인 산부인과와 다르게 특별히 다른 처방을 내리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늘 똑같은 기계에 똑같이 보는 초음파인데 어떻게 진료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곡동

## 지도 제작할때 지명·명칭 안틀리도록 자문 구하라

최근 광주시 서구 세하택지개발예정지구 계획 도면이 기획부동산 업체에게 넘어가면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광주시 전도를 펼쳐보았는데 잘못 기재된 지명을 여러 곳 발견했다.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전시컨벤션센터로, 서구 쌍촌동의 운천사는 운선사로, 서구 세하동의 세동은 새동의 오기인 것 같다.

르렀지만 혹시 다른 곳 전도도 똑같은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특히 지도를 제작할 때 각 마을이나 동의 통칭, 초·중·고교의 교사나 사회교사, 지리교사, 대학교 지리교육과, 지리학과, 지적과, 지역개발학과, 도시계획과등의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김중해·광주시 서구 금호동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만 그런 것인지 모

## 독자마당

### 현금 영수증 며칠 후 취소해버리는 암체 사업자 많아

얼마전 서울에 사는 언니가 전화해서는 느닷없이 현금영수증 금액을 뒀더니 국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세조회를 해보라는 것이다.

이유를 물으니 연말 정산 서류를 준비하다가 현금 영수증 합계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확인해 보니 현금 영수증의 상당 금액이 발행취소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언니는 영수증 발행을 취소한 일은 기억에 없어 영수증을 찾아 대조해 보니 영수증이 발행한 날 또는 그 다음날 이후부터 며칠 동안 발행취

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너무 황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았더니 현금 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즉시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손님들 앞에선 발행해주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발행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투명한 세액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금 영수증제도가 불치각한 일부 사업자들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만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곽향녀·광주시 서구 화정동

## 등산로에서도 애완견 철저히 관리 하는 것이 예의

일곱살만 딸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산에 올랐다가 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 공중 화장실을 찾았는데, 눈에 띄지 않아 큰 나무 뒤에서 응변을 해결하도록 하고 10m 가량 떨어진 등산로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딸 아이가 "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뛰어 나오는 것이다. 뒤에는 검은색 개 한 마리가 우리 아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를 진정시킨 뒤 너무 화가 나게 주인을 찾았더니 한 아줌마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해피야, 이리!" 하면서 개를 데리고 사라지는 것 아닌가.

등산로에서도 애완견은 풀에 매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도 없이 애완견을 데리고오다가 불치각한 일부 사업자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만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애완견을 기르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

▲오새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 너무 적은 쌀소비량 대책마련 돼야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16g으로 하루 두 공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8.8kg으로 한 가마니(80kg)에도 미치지 못한다니 쌀 소비량이 너무 감소되었음을 뜻하지 아니한가.

물론 우리의 경제가 농업 대신 공업중심으로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되면서 식생활이 많이 개선된 탓도 있지만 이토록 쌀 소비량이 급속도로 줄어 든다면 앞으로 누가

쌀농사를 짓겠는가. 지금 현재도 농민들은 뼈빠지게 쌀농사를 지어 보았자 이제 정부에서 추곡수매도 하지 않고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비료, 농약값 인상 등으로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을 구제하고 농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쌀 소비 대책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 시설

### 광주·전남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평창에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 전국을 긴장시켰다. 주말 저녁을 보내던 국민들은 갑자기 건물 유리창이 흔들리고 상가 건물대의 물건이 떨어지내려 불안에 떨어야 했다. 피해가 크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충격은 적지 않았다.

이날 지진은 진앙지인 강원을 비롯 서울과 경기, 충청,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감지됐다. 기상청과 소방서 등에는 문의전화와 빗발쳤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산사태, 대형 폭발사고 등이 일어났 것으로 짐작한 국민들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쓰나미가 오는 줄 알았다'고 표현했다.

규모 4.8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 육지와 해상을 통틀어 역대 8번째, 육상만으로는 4번째 높은 강도라고 한다. 강도가 가장 높은 지진은 1980년 발생한 경북 의주 석주의 지진(5.3)이다. 이번 지진은 '중간급'에 해당되지만 진앙지 인근 주민

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 무풍지대(無風地帶)로 여겨졌던 한반도에서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03년 3월 전남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규모 4.9의 지진을 비롯 해마다 1~2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5.0 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지진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매우 미흡하다. 광주·전남의 건물과 교량은 전체의 0.8%인 5천714 곳만 내진설계가 돼 있을뿐이다. 특히 단독주택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 등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지진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원전과 고속전철, 건물, 아파트 등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최첨단 장비와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을 비롯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 주택대출금리 인상폭 예금금리 3.5배라니

예금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예금과 대출금리(예대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금리의 3.5배에 달하고, 올 들어서도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한 채 제 잇속만 챙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4.43%로 6월 말에 비해 0.06%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69%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대출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금리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은 수준이다.

1년 전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1억 원을 빌린 개인은 연간 100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은행은 그만큼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출혈경쟁으로 부동산 기풍을 부

추진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가계 및 금융시스템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짝짜개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인상을 미루거나 천천히 올려 금리 차를 따먹는 무리한 예대마진 장사는 은행 쪽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예감다. 특히 주택대출 수요를 제한한다며 기존 대출자에게도 전방위로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은 가계부실을 부추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도 기업으로서 수익이 중요하겠지만 가계나 기업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면서 '나만 살자'라는 식의 이기적인 영업태도는 개선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고통을 나누는 상생의 자세가 아쉽다. 정부도 은행의 지나친 돈 장사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 대출의 출혈경쟁으로 부동산 기풍을 부

## 無等鼓

지난 17일을 기해 핵 전쟁에 따른 인류 최후의 날을 상징하는 '심판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11시 55분으로 조정됐다. 종전보다 2분 앞당겨진 것이다. 그만큼 종말에 가까워졌다. 핵과 학자회비인 '블러틴'은 "북한과 이란의 핵 야망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불안한 핵물질 관리 상태 때문에 종말의 시일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심판의 날 시계는 1947년 미국의 원자 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계획'에 참여했던 일단의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에 설치했다. 핵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0시'로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왔다.

이 시계는 설치된 이후 60년동안 17차례 시간이 조정됐다. 최초 설치될 때에 가까워진 것은 1953년. 미국과 옛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때다. 당시 시간은 종말까지 불과 2분 남은 11시 58분이었다.

반면 1991년 동구권이 몰락하고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에 동의했을 때는 11시 43분으로 자정에서 무려(?) 17분이나 멀어졌다.

최근에 이 시계가 조정된 것은 2002년 2월. 9·11 테러와 테러조직들의 핵물질 입수 기도,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간 긴장 등을 감안해 11시 53분으로 앞당겨졌다.

'블러틴'은 이번 심판의 날 시계를 조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핵 전쟁과 함께 지구 종말의 또 다른 시나리오로 지구난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들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유럽에서는 말라리아와 흑열병 등 열대성 질병이 등장하고 있다. 북극과 알프스의 빙하들은 금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녹아 내릴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올 겨울에도 지구촌은 기상 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지구의 몸 상태가 회복 불능의 중증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오승주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어촌개발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